

“하나님은 성전 재건 위해 오늘날의 스룹바벨을 찾으신다”

2025 스룹바벨 통일비전 캠프
한국 학생 8명, 미국 학생 4명 참가

2025 스룹바벨 통일비전 캠프가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캠프는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디아스포라의 다음 세대들, 특히 탈북민 자녀들을 교육해 통일의 스룹바벨 세대들로 양육해서 주님의 군사들로 세워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김학송 선교사는 둘째날 ‘스룹바벨 비전에 대하여’란 주제의 강의에서 유대인의 교육 전통과 정체성, 그리고 스룹바벨 시대의 성전 재건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적 과제를 제시했다.

김선교사는 “유대인의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 유대인들은 절기 중심의 교육과 토론 중심의 문화, 그리고



2025 스룹바벨 통일비전 캠프가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기독일보

정체성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이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경 속 스룹바벨의 시대에

대해 설명했다. “스룹바벨이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조상

들의 삶을 돌아보았던 것처럼, 오늘

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김 선교사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 나눴다.

“북한에는 4만여 개의 우상이 있고, 1995년부터 2005년까지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며,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민족의 고통이다”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그 땅에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 있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지기를 바란다”며 “북한도 우리 민족이다. 하나님은 그 땅에도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 우리

는 평양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날을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의를 마치며 “우리 마음의 성전을 먼저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무너진 평양의 성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와 자유, 예배가 살아나게 하소서”고 기도했다.

이번 캠프에는 8명의 한국학생, 4명의 미국학생, 6명의 스텝이 참여해 처음 2박 3일 동안 충현선교교회에서 수련회를 한 후,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 도산 안창호 기념관 및 대한인국민회 기념관 방문, 비전의 발걸음으로 스텐포드, 버클리 대학, 구글, 애플을 견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명선언문을 작성하고 캠프를 마친다.

토마스 맹 기자

문의: 714-213-2882, 213-352-6253

김경윤 총장, “세대별 예배가 신앙의 단절로 이어졌다”

→ 1면 기사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이어서

김총장은 세대별 분리 예배를 세대간 신앙이 단절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배가 세대별로 분리되면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헤아려졌다”며,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같은 말씀과 같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 전수의 출발점이다.”

“제자 훈련이 제일 잘 될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다.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 부모님들은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을 잘하시는데, 집에 와서는 그렇지 않기에, 자녀들은 고리를 느낀다.”

김총장은 미국의 청교도들과 유대인의 신앙 교육을 예로 들며, 이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가정을 중심으로 신앙을 전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유대인의 성년식에서는 랍비가 할아버지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전해주고, 할아버지가 그것을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다시 자녀에게 전해준다”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모세오경을 모두 암송할 정도로 말씀 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소개했다.

신앙 전수의 책임이 특히 아버지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총장은 “오늘날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은 가정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훈련하는 장이 되도록 교회 구조를 재정비하는 데 있다”며, “목회에



‘삼대 동일 신앙 목회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다. ©기독일보

는 성도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기 위한 명확한 커리큘럼과 신학적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지역에 각각 ‘삼대 동일 신앙 연구소’를 설립하고, 신앙 전수를 위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해 왔다. 특히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예배의 이해 등 기초 교리를 기반으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을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로 엮은 세대 통합형 12주 교육과정도 소개했다.

또한 그는 신앙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회자가 먼저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는 삶의 본을 보여야 한다며 자신의 실천 사례를 나눴다.

“예수님은,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다. 이것을 진정 누리고 사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자. 저는 아침에 눈을 뜨는 즉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 출근 전에는 십계명을 묵상하고, 학교에 도착

매일의 삶(예시)

눈 뜨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매일 새벽 혹은 경건의 시간 갖기
집 나서기 전 십계명을 묵상하며 결단
직장에서 주기도문으로 업무 시작
잠자리 들기 전 회개와 감사 기도,
시편 127:2 묵상

해 가방을 내려놓고 주기도문을 묵상한 후 업무에 들어간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 기도를 드린다. 시편 127편 2절을 생각하며 숙면에 들어간다.”

“성경은 한 사람이 너무 중요했다. 처음에도 아담 한 사람이 중요했고 물로 심판하게 될 때 그 심판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은 노아 한 사람, 한 가정이었다. 바벨탑에서 모든 사람을 흩어버리셨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출애굽 때는 모세를 불러냈다. 그런데 성장 만 강조하다 보면, 교회에서 한 사

람의 중요성을 잊어버릴 수 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신앙을 전수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앙이 전수될 수 있다.”

“기존 성도의 신앙의 회복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겹보다도 예리하여 훈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

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히 4:12)

우리 인격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 밖에 없다. 외면적 인 것을 갖고는 종교인을 만들 뿐인다. 한 가정, 한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교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처럼 한 교회가 세계를 살려낸다. 성도 한 사람, 그 사람 중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목회의 분명한 방향 전제되어야

“목회자가 스스로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한 목회 계획을 갖고 있는가, 목표는 무엇인가, 방향은 무엇인가?’ 핸드폰 들어가서 자료를 찾으면 안된다. 그것이 생활로 나타나야 하고 이를 위해, 신앙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전할 신앙도 없다며

한 권의 성경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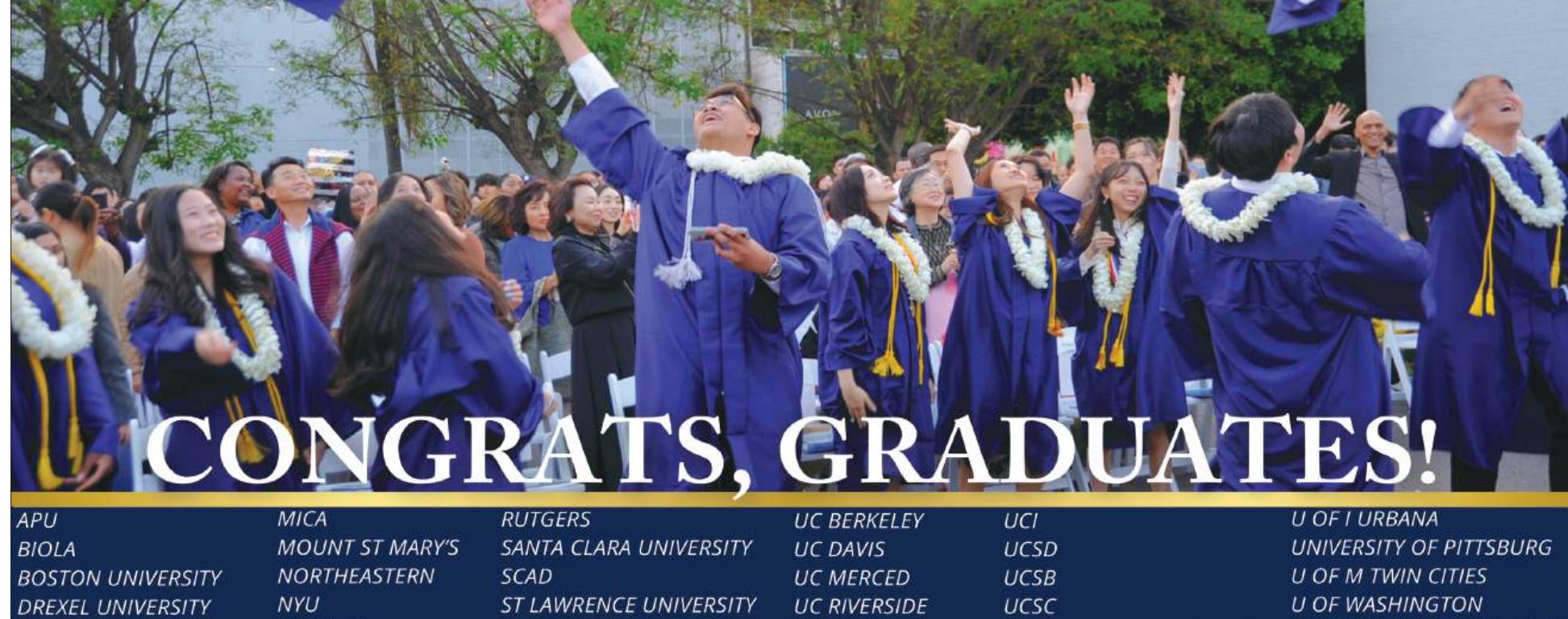
세대 통합 예배의 정의

“세대 통합 예배 드릴 때는 다른 세대가 함께 모여 같은 본문, 같은 설교, 같은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한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는 분리 예배를 드리게 된 기원에 대해, “주일학교 운동을 시작한 것은 1780년 대 영국의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ikes, 1735-1811)이다. 그가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쳤고 그게 미국으로 건너와서 존 뉴이에 의해 자리를 잡게 되었다”며, 세대별로 따로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의 단절되었다고 지적했다.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 그는 “설교 포커스는 장년에 맞추되, 아이들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이들도 말씀 앞에 조용해진다”며, 과거 자신이 담임했던 128년 전통의 교회에서 세대 통합 예배를 정관에 반영한 실제 사례를 들려주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의 강의와 관련해, 한 참석자가 “2세를 위해 동시통역을 제공해야 하는가?”를 질문했고, 김총장은 “제공해야 한다”며, “부교역자가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가정의 소중함,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 적이고 큰 인물이 된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후에는 <삼대의 기본 튼튼 신앙 세우기>, <스토리가 있는 세대 통합 경건 훈련> 강의가 이어졌다.



**Now Enrolling for the
2025-2026 School Year!**
(213) 487-5437
ncahuskies.org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문선영의 머니토크 재정 세미나

이자가 돈을 굴린다... 한인도 배워야 할 재정 원리

'문선영의 머니토크' 대표 문선영 씨가 지난 7월 24일(수) 오후 2시,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전 미주장로교신학대, 이하 CPU, 이상명 총장장) 강당에서 "Understanding Your Money Matters"라는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재정 세미나를 진행했다.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 열린 이번 세미나는 CPU 교수진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상명 총장의 적극적인 홍보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문 대표는 유대인의 재정 교육 방식을 소개하며, 어릴 적부터 가정 내에서 시작되는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유대인의 부 축적과 유지를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에 반면 한국인들은 여려 면에서 출중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재정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 부를 어떻게 축적하고 유지하는지 모른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지만, 이들이 일하는 병원의 병원장은 유대인이고, 로펌의 대표는 유대인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므로 한인들에게도 재정에 대한 교육이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부자로 남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실제 많은 이들이 과거의 수입은 자랑하지만 현재는 부유하지 않음을 예로들어, 재정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복리의 혜택을 강조



재정 전문 회사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 ©기독일보

"한인 자녀들 열심히 공부해 의사, 변호사가 되지만, 이들이 일하는 병원의 병원장, 로펌대표는 유대인." 부를 얻는 법뿐 아니라 유지하는 법 알아야 ... 사망보험금, 중병에 걸렸을 때 큰 힘 된다

하며, 자녀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복리다. 복리로 자라나는 돈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른다. 대신 복리의 힘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30년을 기다리면 엄청난 복리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 어린 아이에게는 30년이 금방 간다. 복리의 혜택을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깨어서 도와주어야 한다. 세상에서 복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

이다. 유대인들은 복리를 받는 곳이 아니면 절대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유대인의 전략 두 가지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꼭 가르치는 두 가지로 '구두닦이, 연통닦이'와 '이자 놀이하는 법'을 소개했다.

"자신들의 영토가 없이 세계로 떠돌아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 구두를 닦고 연통을 닦을 줄 알면 배는 끊지 않고 살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돈을 이자를 받아서 굴리는 방법을 배운다. 돈을 굴리는 데 있어서 천재들이다. 우리도 돈을 눈덩이처럼 굴리려면 이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이자는 크게 고정이자, 변동이자, 지수성이자이다."

문 대표는 내가 어떤 이자를 받아서 돈을 불릴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곳에 돈을 넣어서 돈이 일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자가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이자를 받는 곳에 두는 돈은 아주 게으른 돈이라고 했다. 돈이 게으르지 않도록 일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려므로 이자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것이에 눈이 뜨여져야 우리는 비로소 돈을 굴리게 된다는 것이다.

세금 전략

세금(tax)에 대한 전략적 개념도 소개됐다. 그는 "Tax now, Tax later, Tax advantage"라는 세 가지 구분을 통해, 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절세 혜택이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수익을 낼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수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설명이다.

또한 생명보험의 리빙 벤efit(Living Benefit) 개념을 설명하며, 이 보험을 통해 중병에 걸렸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망보험금을 내가 살아서 받는 혜택이다. 암, 심장병, 뇌졸증

진단을 받은 사례들을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듣게 된다. 그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런 심각한 중병에 걸렸을 때, 내가 살아서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게 된다. 그래서 힘든 투병 기간에 아주 큰 힘을 받게 된다. 미국의 중산층이 파산을 하게 되는 넘버 원 이유가 의료비용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42%의 파산이 의료비용 때문이다. 암 같은 중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용과 동시에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이중고를 겪게 된다. 생명보험의 리빙 벤efit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혜택이다.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한인분들이 이 좋은 혜택을 놓지 않고 꼭 받았으면 좋겠다."

세미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상담료에 대한 질문에 문 대표는 "상담은 100% 무료이며,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고 답했다. LA(3435 Wilshire Blvd, 14층)와 로렌하이츠(1876 Colima Rd) 두 곳에 사무실이 있으며, 사전 예약(626-827-9599)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받듯 재정 체크 받아야

"50~60대를 위한 조언"으로 문 대표는 재정은 상황과 목적은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상담을 받길 조언하며, 건강을 위해서 메디컬 의사에게 건강체크를 받는 것처럼, 재정전문가에게 가서 재정체크를 받아보길 권장했다. 또 자녀들을 위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자녀와 재정 세미나에 함께 참석하거나, 직접 전문가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번 세미나는 영상으로 녹화되어 CPU 웹사이트를 통해 업로드될 예정이며, 많은 한인 기독교인들에게 지혜로운 재정 관리와 청지기 삶에 대한 이해를 돋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민선 기자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엔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25년 건축의 딜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센터메디컬그룹 회원들께 무료로 제공되는 추억의 무대

“
어제의 이야기와 오늘의 웃음이 만납니다.”

무성영화 변사영화제

센터메디컬그룹 회원 문의연락처
월 - 금 / 9AM - 5PM
888.847.3098

센터메디컬그룹 회원분들만
관람이 가능한 공연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대 마지막 변사
최영준



천재 개그맨
엄영수

〈홍도야 울지마라〉 & 〈검사와 여선생〉 / 〈엄영수 개그 쇼〉

2025년 8월 5일 & 6일

CGV BUENA PARK at THE SOURCE OC

6988 Beach Blvd, Suite B301, Buena Park, CA 90621

3회 공연 중
1회만 선택 가능

8월 5일(화) 오후 7시
1부: 홍도야 울지마라
2부: 엄영수 개그 쇼

8월 6일(수) 오후 2시
1부: 검사와 여선생
2부: 엄영수 개그 쇼

8월 6일(수) 오후 7시
1부: 홍도야 울지마라
2부: 엄영수 개그 쇼

주관

SINCE 1990
문화기획 에이콤
ART COMMUNICATION

센터메디컬그룹 회원분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원 1인당 1장만 수령 가능합니다 (한 공연 시간)



한교총 대표회장단, 우웨이 중국기독교협회장 만나

김종혁 대표회장 “신학교간 교류 시작하면서 교회간 교류로 확대해 갔으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이하 한교총) 대표회장단이 28일 중국 난징에 있는 금릉셔허신학교(난징연합신학교)를 찾아 우웨이 목사와 환담했다. 북경시 조양교회를 담임하는 우웨이 목사는 중국기독교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중국기독교협회가 주관·운영

하는 금릉셔허신학교 교장직을 겸하고 있다.

우웨이 목사는 한교총 대표회장단을 환영하며 중국 내 신학교 및 교회 상황을 상세히 소개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신학교의 경우 전국에 22개가 있는데, 금릉신학교처럼 전국에 산재한 학교가 있

고, 지역단위별 신학교와 성단위별 신학교들이 있다. 교회의 경우 모두 6만여 교회 3천8백만 명 정도의 교인이 있다. 한교총은 이에 대해 “이는 기독교협회 안에 있는 교회로 보인다”고 했다.

우웨이 목사는 또 “우리 신학교의 경우 금년 9월학기에도 400명의 학생이 입학한다. 470명이 기숙하며 수업을 받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 공부한 교수진을 포함해 20여 명이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교총은 전했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는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교회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후 “이번 중국교회 방문이 양국 교회간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신학교간 교류를 시작하면서 교회간 교류로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 중국 종교법이 개정되면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교회가 가능해졌다

고 알고 있는데, 한국교회 좋은 목회자들이 들어와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웨이 목사는 “양국간의 모든 관계는 정부간 관계의 영향이 큰 것이다. 그럼에도 교회가 서로 교제해 가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대화에서 김영길 공동대표회장(예장 통합 총회장)은 “한국교회 교단은 서로 경쟁하고 존중하며 지금의 한국교회를 이루어 왔다. 또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도 대화하고 소통하며 성장해왔다. 양국 교회가 교류하며 함께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선 공동대표회장(예장 합동 총회장)은 “바른 신학이 있어야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바른 신학이 있어야 성도들도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 중국교회 대표지도자를 만날 수 있어 감사하며, 양국 교회가 교류를 통해 서로 발전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음 공동대표회장(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은 “구원관과 성경관, 삼위일체 교리 등 성도들의 신앙과 상황에 대하여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웨이 목사는 “중국 내 신학교들은 외국과의 교류보다는 중국 내 학술 교류를 원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좋은 목회자를 기르기 위한 좋은 학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자신의 미국 유학 경험을 소개하면서 중국교회의 과제로는 “현신적인 목회자, 전심전력하는 목회자, 현신하는 전도자, 말씀대로 가르치는 목회자를 잘 길러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간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신앙 한 가지만 보고 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교총 김종혁 대표회장은 우웨이 회장의 한교총 방문을 초청하고, 학교 내 예배당 등 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을 가졌다.

최승연 기자



한교총 대표회장단이 28일 중국 난징에 있는 금릉셔허신학교(난징연합신학교)를 찾아 우웨이 목사(왼쪽에서 다섯 번째)와 환담했다. ©한교총

C.S 루이스와 J.R.R 톨킨의 우정, 애니메이션으로 부활

신화와 문학을 빛은 두 거장의 창조적 동행, ‘The Mythmakers’ 애니메이션 제작 확정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C.S. 루이스와 J.R.R. 톤킨의 깊은 우정과 창조적 동행을 그린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가 제작된다고 최근 보도했다. CP는 〈나니아 연대기〉와 〈반지의 제왕〉의 원작자로 널리 알려진 두 문학 거장의 이야기로, 영화는 이들의 문학적 여정과 영적 교류를 담은 그래픽 노블 ‘The Mythmakers’를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다.

CP는 이번 프로젝트가 독립 영화 스튜디오 Burns & Co.의 설립자 애런 번스(Aaron Burns)에 의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번스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존 헨드릭스(John Hendrix)가 쓴 ‘The Mythmakers’의 영화 판권을 확보했으며 그는 “루이스와 톤킨의 작품은 어릴 때부터 내게 큰 영감을 주었다”며 “헨드릭스의 책을 읽자마자 이 이야기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확신했다”고 전했다. 그래픽 노블 ‘The Mythmakers’는 20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루



C.S. 루이스. ©기독일보DB

이스와 톤킨 사이의 예상치 못한 우정과 그 지속적인 교류 과정을 따라간다. 생생한 삽화와 접근성 높은 서사를 통해 두 작가의 영적 삶, 창작 욕구, 그리고 서로 간의 창조적 긴장이 어떻게 현대 문학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들을 탄생시켰는지를 조명한다.

헨드릭스는 앞서 ‘The Faithful

Spy: Dietrich Bonhoeffer and the Plot to Kill Hitler’로 ECPA 올해의 책 상과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The Holy Ghost’, ‘Go and Do Likewise!’, ‘Miracle Man: The Story of Jesus’ 등의 저서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번스와 그의 팀이 ‘The Mythmakers’를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게 되어 매우 기쁘

다”며 “이 팀은 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루이스와 톤킨, 잉클링스(Inklings)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든 신화 세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헨드릭스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책 작업은 5년이 걸렸지만, 그 이야기는 내가 10살에 〈호빗〉을 처음 읽었을 때 이미 내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회고하며 “많은 이들이 품고 있는 그 향수를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매체를 통해 전할 수 있게 되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루이스와 톤킨이 가르쳐준 바와 같이, 예술은 공동체 안에서 더 깊어지고 넓어 진다”며 “이 이야기가 더 큰 동역자들과 함께 영화라는 새로운 장르에서 펼쳐질 것을 고대한다”고 전했다. CP는 해당 영화가 애런 번스가 프로듀서로, ‘Birthright Outlaw’의 각본을 맡았던 저스틴 스트로우핸드(Justin Strawhand)가 감독을 맡고 안젤라 갈가니 설리번(Angela Galgani Sullivan)도 프로듀서로 참

여하며, 원작자인 헨드릭스는 총괄 프로듀서로 제작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CP는 이번 ‘The Mythmakers’ 애니메이션은 루이스와 톤킨의 유산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 흐름에 또 하나의 작품으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터 잭슨 감독의 〈반지의 제왕〉과 〈호빗〉 3부작은 총 17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으며, 아마존의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시리즈도 제2시대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해석으로 2022년 첫 공개됐다.

또한 〈톨킨〉과 같은 전기영화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영화화 계획, 넷플릭스의 〈나니아 연대기〉 리부트 등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루이스의 세계관과 신학을 무대에서 구현해온 배우 맥스 맥클린(Max McLean)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영화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배우 짐 카비젤은 차기작 〈그리스도의 부활〉에 앞서 이 작품을 영적 준비의 일환으로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홍은혜 기자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тен시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탈보트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보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장 인사말

탈보트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보트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Minsoo Sim, Ph.D./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		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		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		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		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		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
	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		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인 이유는

늘 따듯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리디아 전 원장과 전달훈 박사

상담의 높은 벽 전인 코칭으로 넘는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의 방향을 잃고 소진(burnout)되는 현대인들.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은 늘고 있지만, '정신과 상담'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높은 문턱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러한 가운데, 의학(MD)과 임상심리학(Ph.D.) 전문가가 '상담 이전의 예방적 돌봄'과 '건강한 이들의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전인 코칭(Whole-Person Coaching)'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화제의 중심은 국제코칭연맹(ICF) 인증 코칭 교육을 한국어로 제공하는 'GIFT 전인코칭전문학교, 리디아전 원장과 전달훈 교수이다.

임상심리학 박사이자 ICF 인증 전문코치인 리디아 전 원장에 따르면, 코칭은 전문가의 질문을 통해 스스로 내면의 답을 찾고 잠재력을 끌어내도록 돋는 '역동적 파트너십'이다.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다루는 상담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 의학박사의 혜안 "마음의 GYM, 왜 외면하십니까?"

GIFT 전인코칭전문학교의 또 다른 한 축은 의학박사이자 호스피스 메디컬 디렉터인 전달훈 교수다. 그는 '몸 건강을 위해 GYM에 가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왜 마음의 균형을 기르는 일은 외면하느냐'고 반문한다. 이곳에서는 신체적 건강(의학), 정서적 안정(심리학), 관계의 회복(코칭), 영적 성장(영성)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전인 코치'를 양성한다.

GIFT가 제시하는 'Spiritual Coach(영적 코치)' 전문 트랙은 코칭 시장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모델로 꼽힌다. 이 과정은 병원, 호스피스 등에서 위기에 처한 환자와 가족에게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캐플린(Spiritual Care Chaplain)' 자격 취득의 기반이 된다.

한편, GIFT 전인코칭전문학교는 오는 9월 2일(화) 제2기 ICF 코치 자격증 교육과정을 개강한다. 이에 앞서 8월 4일(월)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Zoom)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8월 8일 이전 조기 등록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문의는 gift-coachinginstitute.com, 714-298-1115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한미연합회, 모의 유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는 2025-2026년도 한미연합회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이하 "MUN") 프로그램에 참가할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한다.

참가 학생들은 모의유엔 대회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게 된다. 작년에는 4개 주요 모의유엔 대회에서 22개 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학생들 중에는 Stanford, Duke, Columbia, Dartmouth, Boston University, Vanderbilt, USC, UC Berkeley, UCLA 등에 진학한 사례도 다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진행되며, 정규 수업은 매주 수요일 온라인으로 2시간씩 진행되고, 모의유엔 대



한미연합회가 '모의유엔(MUN)'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한다. ©한미연합회 대상: 8학년부터 11학년, 지원 마감 8월 8일(금), 최종 합격자 8월 20일 발표, 정규 수업 매주 수 2시간, 매달 한 번 특별 세션

회 준비를 위한 특별 세션이 매달 2시간씩 진행되고, 모의유엔 대

학 중인 8학년부터 11학년의 중·고등학생 ▲12학년의 경우, 기존 KAC MUN 프로그램에 참가 이력이 있어야만 지원 가능 ▲모의유

엔을 처음 접하거나 경험을 쌓고자 하는 학생이다.

조기 지원 마감일은 8월 1일(금)이며, 정규 지원 마감일은 8월 8일(금)이다. 서류 심사 합격자는 개별 연락을 통해 면접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8월 20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방법은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고, 학교 성적표, 추천인 정보, 에세이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한미연합회 웹사이트 (/kacla.org/model-united-nations-mun)를 통해 할 수 있다. 등록비는 150달러이다. 매달 75불의 수업료가 부과되며, 재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지원된다. 김민선 기자

▶ 문의: 전화 (213) 365-5999 또는 이메일 programs@kacla.org

효사랑 시니어 대학 가을학기 개강 8월 12일



효사랑 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는 지난 7월 23일부터 3일간 친구 초청 효사랑 시니어 비전 캠프가 개최한 데 이어, 8월 12일(화)부터 2025년 시니어대학 가을학기를 개강한다. 이번 가을학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시니어 대학(학장 조성우 목사)의 과목은 신앙 과목을 중심으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16주 동안 계속되는 이번 가을학기는 신앙적, 신체적, 지성적, 감성적 측면을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풍부하게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커리큘럼으로 △성경 파노라마 △ 음악 교실 △난타 교실 △라인댄스 △하모니카 교실 △스마트폰 △도자기공예 △악기 어여로폰 △자서전 쓰기 △중창교실 △합창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운영된다.

'시니어대학'을 검색하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 있으며 효사랑 선교회 웹 페이지에서 상세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멕시코 1박 2일 일정의 선교와 양로 병원 봉사를 통해 배움의 결실을 삶을 통해 맺게 된다. 지난 학기에는 겨울 방학 동안 멕시코 앤 세나다 양로원과 여성 갱생원, 미자립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그분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1박 2일 일정으로 선교도 다녀왔다. 등록금은 매월 100달러이며 교제와 점심이 제공된다. 김민선 기자

주소: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문의: (714) 670-8004, (562) 833-5520, hyosarangus@gmail.com

→ 1면 기사 <Z 세대, 제자화해 야...>에 이어서
이어 세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둘 바이 지역 교회 리더, 20년간 청년 사역을 해 온 평범한 일상을 공개하며 진정성과 삶의 일치를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은 우리의 프로그램이나 지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한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한다."며 청중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헤르자이는 "Z 세대를 '내일의 교회'가 아닌 '오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네트워크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감정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정체성·정신 건강·성 윤리 등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 세대는, 쉽게 오해받는다"고 지적하며 "이들을 콘텐츠 소비자로만 대하지 말고,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로 대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정체성 혼란과 성적 왜곡을 Z 세대가 당면한 주요 위기로 꼽았다.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잘못된 성 개념에 노출되고, 있으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있다. 또한 이 상주의보다 실용주의로 기우는 경향도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선교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누가 후원해 줄까?"라는 질문이 뒤따르고, 재정적 불안으로 도전 보다는 안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

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 실시한 연구를 인용해, 기독교인 Z 세대 중 다수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문화적 가치의 급변이 보수적 종교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또 믿음을 일蹴 고백한 젊은이들이라도 체계적인 제자

훈련과 공동체적 지원이 결여되어

성장 없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헤르자이는 단기적 행사나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 모델을 넘어서는 멘토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청년들이 찾는 리더는 완벽하게 포장된 인물이 아니라, 실패와의 심 속에서도 함께 걸어줄 진짜 사

람"이라고 했다. 그는 '스타벅스에서 제자훈련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언급하며, "예수님은 사람들을 삶으로 초대하셨다. 오늘의 청년들이 원하는 것도 완벽함이 아니라 '근접함'"이라고 강조했다.

헤르자이는 Z 세대를 사역의 '프로젝트'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며, 이 세대를 가장 잘 이해하고 도달할 수 있는 사역자가 바로 이 세대 자신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교회, 부모, 멘토의 삼중 협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교회는 여전히 신앙 형성의 중심이며, "예수님은 NGO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로 그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 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힘

장점 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 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콩고민주공화국 성당 습격 참극... 기도 중 신자 38명 살해돼



콩고민주공화국 북동부 이투리(Ituri) 지방에서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무장 반군이 가톨릭 성당을 습격해 기도 중이던 신자 38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일보 DB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콩고민주공화국(DRC) 북동부 이투리(Ituri) 지방에서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무장 반군이 가톨릭 성당을 습격해 기도 중이던 신자 38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2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지난 6월 27일(일) 새벽 1시경 코만다(Komanda) 마을의 ‘복되신 아누아리테 성당(Parish of Blessed Anuarite)’에서 발생했으며, 추가로 인근 마을에서도 5명이 더 희생돼 총 사망자는 43명에 달했다. CDI는 공격을 감행한 무장세력이 ‘연합민주군(ADF, Allied Democratic Forces)’으로, 1990년대 우간다에서 결성된 이후 현재는 콩고-우간다 국경 인근을 근거지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ADF는 이슬람국가가 중앙아프리카 지부(SCAP)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건 발생 하루 뒤인 28일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했다.

유엔 콩고 평화유지임무단(MONUSCO)에 따르면, 사망자 중 9명은 어린이였으며, 여성 19명과 남성 15명이 포함돼 있었다. ADF 대원들은 총기와 마체데(날붙이)를 사용해 기도 중이던 신자들을

을 무차별 공격했으며, 인근 상점과 가옥을 압탈한 뒤 방화까지 저질렀다.

MONUSCO의 비비안 반 데 페레(Vivian van de Perre) 부단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예배 장소와 같은 민간 보호 구역에 대한 이러한 표적 공격은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고한 민간 인들을 겨냥한 테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콩고군 이투리 지방 대변인인 줄스 응공고(Jules Ngongo) 중위는 이번 공격이 우간다군과 DRC군의 ADF 소탕작전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 군은 끝까지 이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DRC는 2021년부터 우간다와 공동으로 ADF 격퇴 작전을 펼치고 있다.

CDI는 이번 공격이 ADF의 잔혹성과 콩고 동부 지역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다시금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ADF는 2019년 이슬람국가에 충성을 맹세한 이후 교회와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민간인 학살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북키후(North Kivu) 주 교회에서 70명을 학살한 바 있다.

최승연 기자

우간다서 기도하던 기독교 개종자 가족에 의해 살해돼



기도하는 우간다인.(사진은 기사와 무관) ©pixabay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우간다 동부 칼리로(Kaliro) 지역에서 한 기독교 개종자가 가족들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고 2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8일(금), 37세의 카사지야 압둘 말리키(Kasajja Abdul Maliki)가 자택에서 기도하던 중 일어났다. 그는 무슬림 신앙을 지닌 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끝내 숨졌다.

말리키는 지난 4월 칼리로 타운에서 열린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이다. 개종 이후 그는 매주 금요일 무슬림들의 예배 시간 동안 자택에 머물며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왔다. 현지 기독교 매체인 모닝스타뉴스(Morning Star News)에 따르면, 말리키는 이처럼 꾸준히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지역 교회에서 주관하는 제자훈련과 융접 기술 훈련에도 참여해 왔다.

사건 당일, 말리키의 조카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족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이를 가족들에게 알렸다. 이후 가족들이 급히 말리키의 집으로 돌려가 문을 얹지로 열고 들어갔고, 그가 성경을 옆에 두고 기도 중인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은 성경을 찢고, 이슬람 구호인 “알라후 아크바르(Allah Akbar)”를 외치며 말리키

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CT는 폭력이 더욱 격화됐다고 밝혔다. 조카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이자 말리키의 형과 친척이 칼과 막대를 들고 도착했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말리키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말리키는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칼리무는 그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찔렸고, 그는 이웃 주민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말리키는 개종 후 매월 두 차례 금요일 저녁 성경공부에 참석했고, 교회는 그가 습득한 융접 기술을 바탕으로 칼리로 타운에서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교회 측은 전했다.

말리키가 모스크 예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가족들은 그가 교회에 드나들고 있다는 제보를 무슬림 이웃으로부터 받고 그의 개종을 확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간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개종, 신앙 전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특히 동부 지역에서는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심각한 위협과 박해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간다 전체 인구 중 약 12%가 무슬림이며, 그중 상당수가 동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김성식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청년기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영화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 오후 8:00

영화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 오후 8:00

영화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 오후 8:00

영화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 오후 8:00

영화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 오후 8:00

영화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 오후 8:00

영화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 오후 8:00

영화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 오후 8:00

영화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 오후 8:00

영화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 오후 8:00

영화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 오후 8:00

영화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 오후 8:00

영화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영화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div data-bbox="490 1520 614 1529</div>
<div data-bbox="490 1528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어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 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찰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F. (310) 530-8400/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EM3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집으로 오병이어의 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org

주일1부예배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예배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예배 오후 11:30
EM4부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GROP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장유성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성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새벽기도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별다른 구국제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주일예배 오전 11:30
천양예배 오전 9:30(수)
중복기도 오전 9:30(목)
제자서성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준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 오전 9:15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7: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반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령청부회 오후 2:30

한기홍 담임목사



온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례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F. (714) 446-6207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4부예배 오후 2:00

김종규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on@hanmail.net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krcoc.com

주일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6:00

한기홍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on@hanmail.net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 252-9191/www.lordlight.org

주일 예배 오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 444-0521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복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www.eastars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

4부예배 오전 1:45 새벽예배(온라인) 6:00(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F. (909) 622-1480/inlandchurch.org

5년간 '복음 대화 1만 건' 목표 복음전도 일상화 나선다



복음 대화 지도가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비치 헤이븐 교회 정문에 전시되어 있다. ©비치

美 교회 신뢰도 36%, 2020년 이후 3년 만에 상승세



© pixabay

미국 내 교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3년간의 정체를 딛고 반등했다. 최근 갤럽(Gallup)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6%가 교회를 '매우 신뢰하거나 꽤 신뢰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기록된 의미 있는 상승세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교회에 대한 신뢰는 2022년 31%로 하락한 뒤 2023년에도 32% 수준에 머물며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해 왔다. 갤럽은 1973년부터 해당 수치를 매년 추적해왔으며, 당시 교회 신뢰도는 66%였고, 1975년에는 68%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갤럽 조사 외에도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는 2001년 9·11 테러 직후 일시적으로 교회 신뢰도가 60% 까지 치솟은 사례를 제외하면, 최근의 상승세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폭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교회 신뢰도는 2024년 49%에서 2025년 64%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이후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전반적인 제도권 신뢰가 회복된 흐름과 일치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교회에 대한 신뢰가 22%에서 21%로 소폭 하락했으며, 무당층에서는 28%에서 30%로 소폭 증가했다. 갤럽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실제 성과보다 정치적 소속감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대통령직에 대한 신뢰는 73포인트 급등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5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성별, 소득 등 여러 인구 통계 집단에서도 신뢰도의 변화가 관찰됐다. 여성 응답자의 교회 신뢰도는 8포인트 상

최승연 기자

미국 女 선수들, 트랜스젠더에게 금 1,941개 빼앗겨

미국의 여성인권단체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 모임'(Concerned Women for America, 이하 CWA)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선수들이 미국에서 여성과 소녀들로부터 금메달을 1,900개 이상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1980년대 이후 여성 전용 종목에 생물학적 남성이 출전한 사례들을 종합해 작성됐으며, 이들이 여성 경기에서 총 1,941개의 금메달과 약 50만 달러(약 6억 7천만 원)의 상금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생물학적 남성이 1만 건 이상의 여성 스포츠 대회에 출전한 사례가 포함됐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521명의 여성 선수가 남성 선수에게 패해 은메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들은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미국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 그리고 여러 주 단위 체육단체 산하 경기에서 발생했다.

CWA 페니 낸스(Penny Nance) 대표는 성명에서 "트랜스젠더 남성들은 너무 오랫동안 여성 스포츠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자리를 빼앗고 방해했으며, 심지어 그들에게 부상까지 입혔다"며 "충격적으로 1,900명 넘는 여성 선수들이 남성에게 밀려 2위에 머물렀다. 이는 엄청난 불공정이며, 여성 스포츠는 반드시 성별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낸스 대표는 "USOPC가 트랜스젠더 남성의 여성 종목 출전을 제한하는 정책 개정을 환영하며, 다른 체육 단체들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것은 여성들에게 큰 승리다.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과 경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공정하며, 다른 단체들도 같은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USOPC는 최근 '운동선수 안전 정책'(Athlete Safety Policy)을 개정했으며, 해당 문서에는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을 따른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USOPC는 또한 "우리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 NGBs(국가체육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낸스는 해당 정책이 긍정적인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변화가 3년 내에 폐기될 수도 있다며 연방 의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WA는 현재 올림픽 및 아마추어 스포츠에서 '여성 보호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성 종목에 생물학적 여성만 출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에는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미지역) 오후 8:30
2부예배 오후 11:00 세벽예배 오후 5:30(화-금) 오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김성진 담임목사

-부 07:30AM -1부 09:00AM
-2부 09:15AM -2부 11: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gmc.org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성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후 10:30 학교예배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후 10:30 세벽예배(화-토) 오전 6:0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19 Email: joonim0623@gmail.com

장수영 담임목사

Youth (6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학년) 11:00 AM 세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어부 (24개월 이하) 11:00 A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세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장수영 담임목사



연약 교회

온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church.com

강문수 담임목사



로뎀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병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LA 북부 지역,拉斯ベ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세벽기도회 오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세벽기도회 오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등이오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학여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12: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후 6:00(화-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예배 1부 오후 12:3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교육부 예배 주일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예배 1부 오후 12:3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교육부 예배 주일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iccc.office@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찬양 저녁 7:45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7:0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후 12:3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새벽예배 6:00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예배 오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후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Y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y.org

주일예배 1부 오후 9:45

주일예배 2부 오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622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index.php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p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O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원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MOTIVE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TOWING**헤어 것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경기장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코프(Beauty College) 최대 한국인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센터메디컬그룹 무성영화 변사 공연 마련

센터메디컬그룹이 오는 8월, 한인 시니어 회원들을 위한 특별한 무성영화 변사 영화제를 CGV Buena Park에서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한국 고전 무성영화 상영과 전통 변사 해설, 그리고 개그 공연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문화 무대로 꾸며져, 회원들에게 향수와 웃음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는 한국의 마지막 현역 변사 최영준이 직접 출연해, 고전 명작 '홍도야 울지마라' 혹은 '검사와 여선생' 중 한 편을 변사 해설로 풀어낸다. '홍도야 울지마라'는 일제강점기 기난과 신분 차별 속에서 피어난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담았으며, '검사와 여선생'은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쓴 여선생을 위해 그녀의 옛 제자이자 검사로 성장한 인물이 정의를 위해 나서는 이야기로, 의리와 희망을 주제로 한다.

최영준 변사는 전통 변사 특유의 현장감 넘치는 목소리 연기와 스토리텔링으로 관객들에게 생생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개그맨 엄영수가 출연해 유쾌한 개그 공연으로 무대에 즐거움을 더한다. 공연은 개그쇼와 무성영화 상영으로 구성되며, 총 세 차례 진행된다.

이번 영화제는 한국 고전영화의 향수와 웃음을 한자리에서 즐

길 수 있는 자리로, 전통 변사 공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지난 7월 세리토스에서 열린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전미 투어를 공식 후원하며, 한인 시니어 회원들에게 깊은 감동과 잊지 못 할 추억을 선사했다.

센터메디컬그룹 측은 "회원분들께 단순한 의료 서비스

를 넘어 문화와 감동이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건강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센터메디컬그룹 회원만 참석 가능하며, 회원 1인당 한 회차 공연만 선택해 티켓 1매를 신청할 수 있다. 좌석은 선착순 배정으로 조기 마감이 예상되며, 티켓

센터메디컬그룹 회원들께 무료로 제공되는 추억의 무대



무성영화 변사 영화제. ©센터메디컬그룹

신청 및 문의는 센터메디컬그룹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문의: (888) 847-3098

▶ 8월 5일(화) 오후 7시: 홍도야 울지마라 + 엄영수 개그쇼

▶ 8월 6일(수) 오후 2시: 검사와 여선생 + 엄영수 개그쇼

▶ 8월 6일(수) 오후 7시: 홍도야 울지마라 + 엄영수 개그쇼

교회 단신

▶ 제4차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 영적 대각성 새벽 기도회

제4차 '3050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 영적 대각성 새벽 기도회'를 지난 7월 28일(월)을 시작으로, 갈보리선교교회에서 8월 20일(수)까지 주일을 제외한 21일 동안 오전 5시 30분(토 오전 6시)에 진행한다.

일시: 7/28(월) ~8/20(수)

장소: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

▶ OC교협 주최 광복절 페스티벌

8월 9일 오후 3시 소스몰 1층 광장에서 진행.

▶ 3050 목회자 세미나 8/21

8월 21일(목) 오전 10시 은혜 한인교회 2층 친교실에서 차세대 목회자 및 부교역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한기홍 목사, 강준민 목사, 김종국 목사(예반겔리아 대학 총장), 이상명 목사(CPU 총장)이 강사로 선다.

▶ 라크마 광복 80주년 음악회

후 5시에 무료 온라인 코칭 세미나 "어서와! 코칭은 처음이지?"를 개최한다. 코칭전문석사(MAPC) 과정을 알리고, 미주 한인들에게 코칭의 이론과 실제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누구나 참여 가능. 참여방법: ZOOMID: 8299476668

▶ 은혜한인교회 한여름 성령집회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오는 8월 7일(목)~10일(주일)까지 서울 원천교회 문강원 목사를 초청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성령 집회를 연다. 문강원 목사는 C채널, 극동방송, CTS-TV 등 다수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 사랑의 빛 선교교회 부흥회

8월 8일(금)~8/10(주일)까지 '갈망, 주를 향한 목마름'을 주제로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를 초청해 본당에서 부흥회를 연다. 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7시, 주일 1~3부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전기세 50~90% 절감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택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OC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진유철 칼럼

비판하지 말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판의 얘기를 한 뒤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덧붙이는데 그것은 비판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는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계에서 존경받았던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은 교회가 부흥할 때 애당역할을 하겠다는 사명으로 목사님의 부족과 약함을 자주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들으면서 힘들어하던 목사님이 어쩌다 사모님의 약함이나 잘못을 비판하면, 그것은 그렇게 싫어하고 화를 내셨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일화도 있습니다.

존 스토프 목사님의 책 '존 스토프의 산상수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검열관 같은 비판'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검열관이란 상대방에게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실수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흡잡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검열관같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위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비판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무서운 교만의 죄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고식은 다 먹여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 열매를 먹기 전에는 서로 허물을 보지 않고 내 빼 중의 빼요 살 중의 살이라고 하며 사랑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후에는 남자는 여자 탓, 여자는 뱃 탓을 하고 결국 자신 하나님까지 비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에 비판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후 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님께 가장 책망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세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남의 죄와 허물을 비판하므로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비판이 책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인간이기에 결국 비판이란 언제나 부분적입니다. 또 인간의 눈은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에 앞에서 본 것과 뒤에서 본 것이 다르고, 지금 본 것과 몇 시간 후에 본 것이 다릅니다. 이런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비판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실천을 통해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와 공동체에서, 화목과 승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롱!

강준민 칼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타락 이후 죄의 경향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과거적 가능성을 정결케 하시고, 선한 가능성이 피어나도록 도우십니다. 지옥은 나쁜 잠재력이 극대화되는 곳입니다. 천국은 좋은 잠재력이 극대화되는 곳입니다. 마귀는 나쁜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은 좋은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주십니다. 나쁜 만남은 나쁜 잠재력을 드러내게 만들고, 좋은 만남은 좋은 잠재력을 드러내어 키우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잠재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재력이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는 능력이나 가능성입니다. 잠재력은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심어두신 미개발된 능력입니다. 아직 표현되지 않은 재능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가능성입니다. 잠재력은 영어로 "포텐셜(potential)"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포텐티아(potentia)"에서 유래했습니다. 능력과 재능과 용량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거대한 힘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엡 2:10상). 새 번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God's masterpiece)입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걸작품(God's masterpiece)입니다.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은 다양으로 생산됩니다. 반면에 작품은 하나씩 창조됩니다. 작품은 독특합니다.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실수는 자녀를 상품으로 여기고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비교받을 때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믿고 기대해 줄 때 자녀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우리 자녀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으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는 밝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신뢰해주는 것입니다.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잠재력의 특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깊이 숨어 있습니다. 잠재력은 내재된 능력입니다. 교육과 훈련과 도전을 통해 서서히 드러납니다. 잠재력은 발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잠재력은 개발될수록 더욱 확장됩니다. 잠재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성취하도록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잠재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마일스 먼로(Myles Munroe)는 "무덤은 세상에서 가장 부묘한 곳이다. 그 이유는 사용되지 않은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재력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좋은 만남을 통해 발견됩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잘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재능을 말해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잠재력은 서서히 발견됩니다. 또한 자신 안에 있는 열정과 관심과 잘하는 것 그리고 잘 배우고, 쉽게 배우고, 계속 배우고 싶은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제 안에 심겨진 잠재력은 목양, 가르침, 글쓰기, 영성,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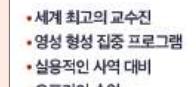
멘토링의 영역에 있습니다. 제 잠재력은 좋은 만남과 칭찬과 격려, 그리고 놀라운 기회를 통해 발견되고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고난과 실패를 통해 발견되고 개발되었습니다.

요셉의 잠재력은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드러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행정 능력과 정치적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창 39:2-4; 41:39-41).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임무와 역할을 통해 잠재력이 드러납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 안에 감춰진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잠재력은 나이가 들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생애를 속단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얼마든지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담아주신 잠재력을 개발한 후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잠재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때 더욱 빛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으신 잠재력의 씨앗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그 씨앗을 개발하는 가장 좋은 길은 꾸준한 학습과 깊이 있는 독서입니다. 도토리가 참나무로 자라듯, 당신 안의 씨앗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나누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202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신입생 모집

탈북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설립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북"

유튜브: "탈북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회(BA), 목회학석사(M.Div), 신답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Midwestern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회(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 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금은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 최첨단 학술적인 온 오프라인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회사, 석사, 박사)

• SEVIS-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일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성답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성담학, 음악학, 건축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경영사학, 비영리단체사학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GLOB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국립기독교신학대학원대학교

• 미국립기독교신학대학원대학교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A)

• 신학박사(D.Th.M)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A)

• 신학박사(D.Th.M)

• 신학석사(M.Div)

• 신학박사(D.Th.M)

• 신학석사(M.A)</

4
8
시간
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의
맛!

송영 통큰 설렁탕

아침 스페셜

매일 | 7:00AM ~10:00AM

표고우거지해장국
or 통큰설렁탕
or 북어국 } \$10⁹⁶
+tax

GOOD MORNING SPECIAL



화요일 Only 투고스페셜

- ▶ 곱배기설렁탕 \$18⁵⁰
+tax
- ▶ 곱배기해장국 \$18⁵⁰
+tax
- ▶ 곰배기도가니 \$26⁵⁰
+tax

목요일 Only(1+1) 투고스페셜

갈비탕 or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해장국을 무료로 드립니다.

\$22¹⁵
+tax { 갈비탕 or 도가니탕
& 표고우거지해장국



삼계탕 스페셜

기간: 7월 10일 ~ 8월 10일(한달간)

~~\$18³⁵~~ → \$14⁹⁹
Reg. +tax

Uber Eats 틸리버리 합니다.

(213)277-1339 | (213)263-9446
2717 W. Olympic Blvd. #108, Los Angeles, CA 90006

단체주문 환영
주 7일 오픈 7AM ~ 10PM
(구)베버리순두부 자리

김영한 칼럼

예수 죽음의 의미 – 대속(代贖)의 죽음(VII)



김 영 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상임대표

Jesus and the Victory of God, London: SPCK and Minneapolis, Ninnesota: Fortress Press, 1996, 268.)

라이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죄 용서의 구현(the embodiment of their forgiveness)”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는 도식적으로 죄 용서라는 말에 대하여 “포로기 상태를 그치게 하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라이트는 기독교 전통의 해석, 고난의 종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대속과 용서를 얻는다는 이사야 53장에 대한 주제 부분에서도 “이사야 40장-55장 전체에 걸쳐서 이 ‘죄 용서’는 아주 분명하게 포로기로부터 돌아온다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라이트가 구약적 전통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세상의 구속을 위한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 예언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은 구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다. 라이트에 있어서 죄 용서란 “종말론적 죄 용서” 내지 종말론적 축복 “의 집단적인 의미로서 바르트와 몰트만, 틸리히 등 현대신학의 영향을 받아 개별적인 죄 사함의 개념이 부재하고 그냥 시대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용서 사건에 힘입는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라이

트의 죄 용서 해석은 전통적 기독교 속죄론에 대한 그의 반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간신되고, 세상의 빛이 되리라는 자신들의 소명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계속되는 노예됨과 포로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N. T. Wright, The Challenge of Jesus: Rediscovering Who Jesus Was and Is (Downers Grover, Ill.: IVP Academics, 1999. 88, 166.). 그리하여 라이트의 죄 용서 개념에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인간의 죄와 관련하여 어떻게 속죄를 이루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는 전통적인 속죄론에 대하여 “우리가 만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의 이름대로 복음주의 신학에 큰 흠을 남기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라이트의 대속 개념은 그가 칭의(稱義, justification) 개념을 종말론적 유보로 해석하면서 전통적 칭의론에 대한 거부와도 연결된다. 그리하여 그는 종교개혁적인 죄의 전가(imputation of sin)를 부정하

고 칭의를 언약적 율법에 대한 신실한 행위에 대한 선언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종교개혁적 정통교회의 칭의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김영한, “종교개혁적 칭의론에 대한 역사적 이해,” 제32차 한국복음주의 조직신학회 정기 논문발표회 자료집, 2016년 11월 5일 고신대 손양원홀, 9-32.). 종교개혁신앙에 의하면 칭의는 마지막 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날 심판은 처음 믿은 날의 칭의에 대한 확인이고 심화다.

종교개혁신학에 있어서 칭의는 언약 백성에 대한 선언으로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에 대한 현재의 예기이다. 하지만 라이트에 의하면 현재의 칭의는 언약의 구성원인 신자들에 대한 선언이며, 미래 칭의는 이러한 언약에 충실히 거하는 행위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라이트의 칭의 개념은 종교개혁적 칭의론의 일회적인 사건과 그리스도의(義) 전가(轉嫁) 사건(Martin Luther, “Lectures on Romans,” in Luther’s Works, ed. Hilton C. Oswald (Sint Luis: Concordia, 1972), 25, 188; John Calvin, Institutes, III.11.2/)에 위배된다. 칭의는 일회적이나 성화는 지속적이다. 라이트는 바울신학의 새 관점 학자들에서처럼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고 있다. <계속>

7. 톰 라이트(N. T. Wright)의 예수 대속 개념의 애매성

현대신학자들은 예수의 대속 죽음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이해를 표명하고 있다. 바르트, 몰트만, 틸리히의 대속 죽음 개념도 객관적 대리 행위를 말하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신자 하나 하나의 죄의 속죄에 대하여 표명하는 것인지 애매하다. 복음주의자 라이트의 대속 개념도 마찬가지로 애매모호하다. “죄의 용서”란 라이트에 의하면 개별 신자가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가 아니다: “죄 용서란 포로기로부터 돌아온 다른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Forgiveness of sins is another way of saying ‘return of exile’).(N. T. Wright,

윤임상 칼럼

샘물과 같은 보혈(Cleansing Fountain)



윤 임 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겨집니다. 그런 그의 69년 생애를 보면 어려서부터 죽을 때 까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천양시로 남긴 위대한 역설의 찬송 작가입니다. 그는 1731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쿠퍼가 여섯 살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 앤은 출산 중 사망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어머니의 죽음은 월리엄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는 평생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 질환으로 고생했습니다.

이후 쿠퍼는 Markyate의 기숙 학교에 처음 보내졌습니다. 그는 여기서 처음으로 갖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웨스트민스터로 옮겨 교육을 받은 후, 1754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상원에서 저널의 서기직을 제안받아 인터뷰를 준비하다 공항장애로 고통받으며 세 번이나 생을 마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St. Alban의 정신 병동으로 보내져 기독교 치료사인 Dr. Cotton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18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정신과 영이 평화로워졌고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롬 3: 23-25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의 찬송작가인 존 뉴턴(John Newton, 1725-1807)

을 만났고 그를 도와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뉴튼은 쿠퍼에게 Olney Hymns라고 불리는 그가 편찬하고 있던 찬송가집에 기고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당시 많은 영감을 받은 쿠퍼는 68개의 찬송시를 써서 기증하게 되었고 그 중 하나의 찬송이 된 것이 ‘샘물과 같은 보혈’ 찬송입니다. 그는 1800년 봄에 수종에 걸려 69세의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이 “샘물과 같은 보혈”的 찬송 중심을 바울 선생님의 말씀 속에서 찾게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이니”(롬3:25)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찬송의 선율은 미국의 포크송으로 1830년 작곡가 로웰 메이슨(Lowell Mason, 1792-1872)이 만들어 대중에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의 2차 대각성 부흥회(The Great Awaking Movement) 시기에 만들어진 찬송으로 당시의 전형적인 가사 배열 형태를 보게 됩니다. 이때는 미국의 서부 켄터기주를 중심으로 캠프미팅 부흥회가 활발히 이루어 수많은 회심자가 나타나게 된 시기였습니다. 이때 모인 대부분의 사람은 문맹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따라 부르고 이해할 수 있게 곡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당시에 유행하던 선율에 복음의 가사를 만들고 중심되는 한 문장을 반복하게 하기 위해 후렴구(Refrain)를 만들거나, 같은 가사를 반복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제3차 대각성 부흥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복음 찬송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미국찬송가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만들어진 찬송을 초기 한국교회에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며 이것을 통해 많은 회중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고백하는 찬송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찬송가에 70% 이상은 이때 만들어진 찬송을 예배자들이 즐겨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 찬송 중 가장 대표적인 찬송인 하나님인 “샘물과 같은 보혈(Cleansing Fountain)”을 통해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통한 구원 역사를 가슴 깊이 담게 합니다. 생명의 피. 그것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어떠한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로 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찬송을 통해 신앙의 바른 지혜를 배우고 찬양하게 됩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잃어버린 곳에서는 독이 됩니다. 그것을 썩어 없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피 또한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흘리신 그리스도 보혈의 피, 우리를 영원히 살리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기독론적 구원론, 그리고 이에 따른 복음의 당위성을 한 찬송 작가가 생생한 묘사를 통해 선명하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즐겨 찬양하는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Cleansing Fountain)”입니다.

이 찬송을 쓴 윌리암 쿠퍼(William Cowper, 1731- 1800)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19세기 영국의 고전 문학가 이자 찬송작가입니다. 그는 초기 낭만주의 시인 중 최고로 여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번호 1-877-580-2424 **사무실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 귀국자동차 운송
-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원병한 가구
-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들클 대형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이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타주이사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하와이, 괌, 알리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리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8월이면, 귓가를 쟁쟁하게 울리던 고향땅 싱그러운 매미울음소리도 아련한 기억속에 남아있고.

장마비가 시원하게 내리던 고국땅도 아득히 멀기만한데.

한가지 잊지 않아야 할 우리 민족의 최고의 날! 광복절이 어느 듯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몸은 비록 이역만리 이국땅에 있어도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80주년 고국의 광복절을 함께 축하하고자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곳 이스턴 동산 나성 한인교회 본당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정다운 노래 고향의 노래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의 가곡의 밤으로 우리 광복 80주년 음악회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자랑스런 성악가님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귀한자리를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석하신분중에 80분을 선정해서 귀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한국 가곡의 밤”



SOP. 문혜원

SOP. 양유진

SOP. Christin 정

SOP. 이영주

M. SOP. 김우영

TEN. 오정록

BAR. 김경태

BAR. 권상욱

해금 승단비

PIANO 윤경미



일시: 2025년 8월 16일 (토) 오후 6시

장소: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문의: 213-255-6453 / 213-503-2526

부회장 황인수

33대 회장 장충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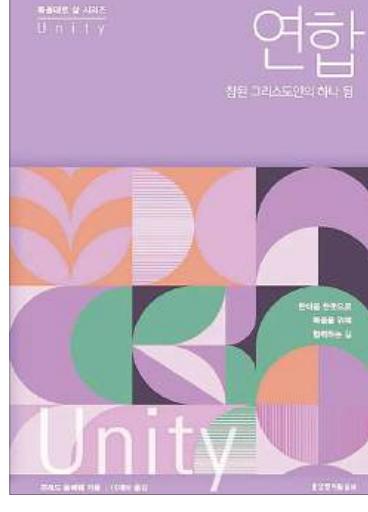
주최:  남가주 충청향우회

Choong Chung Society of Southern CA

협력단체 : 나성한인교회 / 남가주호남향우회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 대한민국 월남참전 미남가주회 / 사우스베이 한인노인회 / 송제호 탁구교실 / 라디오서울 / 한국일보 / H 매거진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교회가 연합할 때, 복음은 더 크게 울린다

분열 조장하는 사람들 속... 참된 성경적 연합이란



연합

콘래드 음베웨 | 이재국 역
| 생명의말씀사 | 136쪽 |
13,000원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관한
성경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고찰을 담고 있다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 (빌 1:27)
하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연합에 관해 성경이
가르치는 균형 있고 참된
관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한 후, 복음적 연합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
과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한다

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대교회는 교파가 없었다. 예수님이 제자들 1백여 명이 다락방에 모여 시작된 교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장됐지만, 동시에 서로 나뉘고 갈라지는 방식으로 분열된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의 분별 차이가 생겨 함께 할 수록 문제가 심화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 따로 모이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다. 가령 물 뿐만 아니라 방식의 세례를 지지하는 무리와 침수를 고집하는 무리가 함께 모이면, 본질적 문제가 아닌데도 그것으로 인해 연합이 깨질 수가 있다. 서로 지역교회로서 분리돼 자기 분별에 따라 예식을 행하되, 한 형제자매로 서로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방식으로 동역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

많은 교단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면, 중세 시대처럼 (가톨릭으로 하나의 연합을 가졌던 때) 나만 옳다는 독단과 교만에 빠지는 것을 서로 경계하고 각자의 분별을 더 날카롭게 다듬어 성경의 본래 의미에 서로를 더 가깝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리브스는 ‘복음대로 삶’이라는 시리즈를 기획해 ‘복음대로 삶’, ‘겸손’, ‘용기’에 이어 ‘연합’이라는 책을 콘래드 음베웨를 통해 출간했다. 싱글레이저 피거슨, 개빈 오틀런드, 조 리그니에 이어 시리즈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 음베웨는 잠비아 루사카에 있는 카브와타 침례교회 목사이자 아프리카 크리스천 대학교 창립 총장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국내 독자에게 처음 소개됐지만, 많은 책을 저술했고 강연가로도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다.

필자는 매년 3월에 LA에서 열리는 세퍼드 콘퍼런스에서 음베웨를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다. 그는 아프리카식 영어 발음으로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훌륭한 강사였다. 무엇보다 음베웨를 비롯해 보디 바우컴, 폴 워셔 등 세계 각지 강사들이 TMAI 심포지엄에서 함께 강연할 때는 음베웨가 쓴 ‘연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 인종과 언어, 민족과 나라, 교단과 분별의 차이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참된 연합의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다.

앞서 밀한 것처럼 지역별로 또는 본질적이지 않은 분별 차이로 교회가 따로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연합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음베웨가 이 책에서 말하는 중대한 원칙이 요구하는 복음으로 하나 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필수 사항이다. 복음이 다른데 하나를 이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개신교와 가톨릭이 기독교 이름으로 하나 되려는 노력은 그래서 번번이 실패했다. 언제나 성경의 복음을 지지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만들어내는 강제적 연합은 성경의 진리를 타협하는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안 머리는 복음주의가 분열하게 된 역사를 다룬 책 〈분열된 복음 주의〉에서 역사가 증명하는 잘못된 연합의 문제를 생생하게 고발한다 (부흥과 개혁사, 2009). 많은 사람이 연합을 말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히 바라시고 아버지께 구하신 대제사장적 간구였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이다(요 17:22)”.

하지만 ‘하나가 되신 하나님’은 모두 진리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로 거룩하게 하나 되기를 바라셨다(요 17:17). 종종 진리를 귀하여 여기며 절대적 권위 아래 순종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오히려 연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동역에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 본질적으로 반드시 일치를 봐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중요하게 여겨 성경의 근거로 우리가 믿는 바는 분명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 하지만, 다른 견해를 존중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동역할 수 있는 교리는 무엇인가? 음베웨는 이 짧은 책을



©Hannah Busing/Unsplash.com

통해 우리가 연합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인 ‘연합’을 어떻게 이를 것인지 제안한다. 교회는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항상 파당과 분쟁의 문제와 싸운다. 죄가 갈등을 빚어내고 거짓이 서로를 밀어내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새 언약 아래로 모은다.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성령

의 소욕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되는 길로 인도하신다. 천국에서 교회는 참 연합을 이뤄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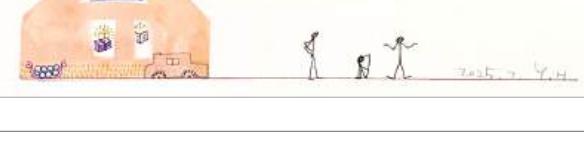
그리고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교회는 연합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시기와 분쟁, 투쟁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 아래 강력한 하나님 됨을 보여주는 교회의 간증만큼 복음을 실제적으로 또 아름답게 선포하는 방법은 없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고린도전서 15:40

There are also heavenly bodies, and there are earthly bodies; but the splendor of the heavenly bodies is one kind, and the splendor of the earthly bodies is another.
1 CORINTHIANS 15:40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용수산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Honey 3lbs

\$25+tax

①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집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Bee Pollen

\$45+tax

②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Royal Jelly

\$25+tax

③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금,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박숙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킹 오브 킹스> (2)

<킹 오브 킹스> 흥행과 성경의 부분적 각색 문제

자라나는 세대 위한 기독교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요

전 세계 K-POP과 BTS 인기 요인

PC나 선정성·폭력성 아닌 콘텐츠

많은 가정, 기독교 콘텐츠 우호적

<킹 오브 킹스>의 제작과 연출을 모두 맡은 장성호 감독은 한 인터뷰를 통해 “북미 시장에서 본 작품이 흥행에 실패할 리 없다

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부가판권 시장 수요를 근거로 제시했다. 북미 DVD,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는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기독교 콘텐츠의 고정 수요가 충분하게 존재하므로, 박스오피스 수익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더라도 투자금 이상의 수익은 무리없이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북미 지역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콘텐츠 고정 수요가 상당한 규모로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북미 기독교인 가정에서도 21세기 들어 자녀들에게 보여줄 만한 미디어 콘텐츠 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다. 과거 1980~90년대까지 미국에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기독교 콘텐츠 수가 적지 않았고, 디즈니로 대표되던 일반적인 어린이·청소년용 콘텐츠 역시 노골적 반기독교 메시지를 담아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국 내에서 기독교 콘텐츠 제작은 줄어들고, 정치적 올바름(PC) 사상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대상 미디어 콘텐츠 제작 편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종교적·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지역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급진적 진보 문화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됐다. 특히 동성애와 마약, 그리고 성(性)적 방종에 대한 경계심을 열게 만드는 콘텐츠에 자녀들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경계심을 갖게 됐다.

과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디즈니 콘텐츠

조차 동성애에 대한 관용을 이리저리 부추기게 되자, 미국의 기독교인 가정과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정에서는 점점 더 과거처럼 ‘순수한’ 기독교적 가치와 도덕률에 부합하는 콘텐츠 수요가 늘어났다.

꼭 기독교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심한 폭력성·선정성,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콘텐츠가 아니라면 괜찮다는 반응이 나올 만큼, 미국 미디어 제작자들은 정치적 올바름 사상에 심취돼 있었다.

참고로 미국에서 K-POP, 특히 방탄소년단(BTS)의 큰 흥행 역시 급진적 정치적 올바름 사상이나 선정성·폭력성을 띤 콘텐츠에 대한 반감에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다. BTS의 노래 가사나 뮤직비디오(M/V) 이미지, 그리고 멤버들의 사생활이 미국의 여러 ‘문제적’ 아티스트들보다 덜 자극적이고 전전하다는 평판을 얻은 것이 이 그룹의 성공과 인기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BTS의 노래와 사생활은 종, 마야, 무분별한 성관계, 그리고 동성애와는 전적으로 무관했다.

미국 교육계와 미디어 업계는 마치 온 세상이 급진적 진보주의 문화와 정치적 올바름 사상으로 대동단결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화적 동향을 적극 환영하는 이들은 생각보다 소수에 불과하다.

보수적이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미국 많은 가정들은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 콘텐츠에 대해 우호적이다. 이것은 이번 <킹 오브 킹스>의 북미 박스오피스 흥행을 통해, 그리고 장성호 감독이 말한 시장 수요의 존재로 입증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하는 교계와 제작자들의 프로의식과 노력이 합쳐진다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교육용·선교용 콘텐츠의 흥행 성공 또한 불가능하지 않다.

이번 <킹 오브 킹스> 외에도 눈여겨볼 만한 성공사례로 1998년 드림웍스의 <아집트 왕자>(The Prince of Egypt), 2016년 뉴미너스 게임즈의 <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드래곤>(That Dragon, Cancer), 2019년 캔터밀 스튜디오의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장편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는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저서 <우리 주님의 생애>를 원전으로 삼는 복음서 영화다.

등을 지목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 관련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때 항상 연출자를 괴롭히는 고민거리가 있다. 성경이나 기독교 문헌 내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지, 아니면 각색된 내용을 넣을지에 대한 고민이다.

성경이나 기독교 문헌 내용을 그대로 넣으면 선교적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흥행에 불리할 수 있고, 각색이 심해지면 흥행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자칫 성경이나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는 여러 방안이 있다. 성경과 기독교 문헌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자 한다면, 숭고하고 장엄하며 신비감 넘치는 연출을 채택해 흥행 면에서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다. 누구나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과 십자가 형벌, 그리고 부활 서사를 지극히 사실적으로 그려내, 관객들이 구속 사역의 비장함과 숭고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와 다르게 성경이나 기독교 문헌의 내용을 허용 범위 안에서 각색해 흥행에 도움이 되는 서사와 장면들을 추가하는 방안도 있다.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 관련 미디어 콘텐츠가 이런 방식으로 제작된다.

이번에 개봉한 <킹 오브 킹스>도 마찬가지다. 교회의 문화 콘텐츠 활용에 다소 회의적인 일부 근본주의 성향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각색된 내용을 문제로 삼는 이들도 분명 존재한다.

기독교 미디어 콘텐츠가 성경이나 기독교 문헌의 내용을 왜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이들의 우려는 부분적으로 공감되는 면이 있다. 일례로 <지서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나 <다빈치 코드> 같은 작품은 복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 내용을 확연하게 비트는 수준의 왜곡만 아니라면 주변 내용을 일부 각색하는 데 과도한 우려를 표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성경 내용의 부분적 각색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의 비판 근거는 ‘성경무오설(biblical inerrancy)’에 있다. 성경의 문자와 단어 하나하나가 성경 기자들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쓰였으므로 성경 내용은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것이 성경무오설의 입장이다.

오늘날 소수의 근본주의 교역자나 신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은 성서무오설이 아닌 성경무류설(biblical infallibility)을 수용한다. 성경무류설이란 성경 기자들의 인간적 한계(과학 지식의 부족, 기억의 부정확화 등)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큰 내용과 복음의 진정한 뜻은 훼손되지 않고 성령의 영감으로 보존돼 왔다는 견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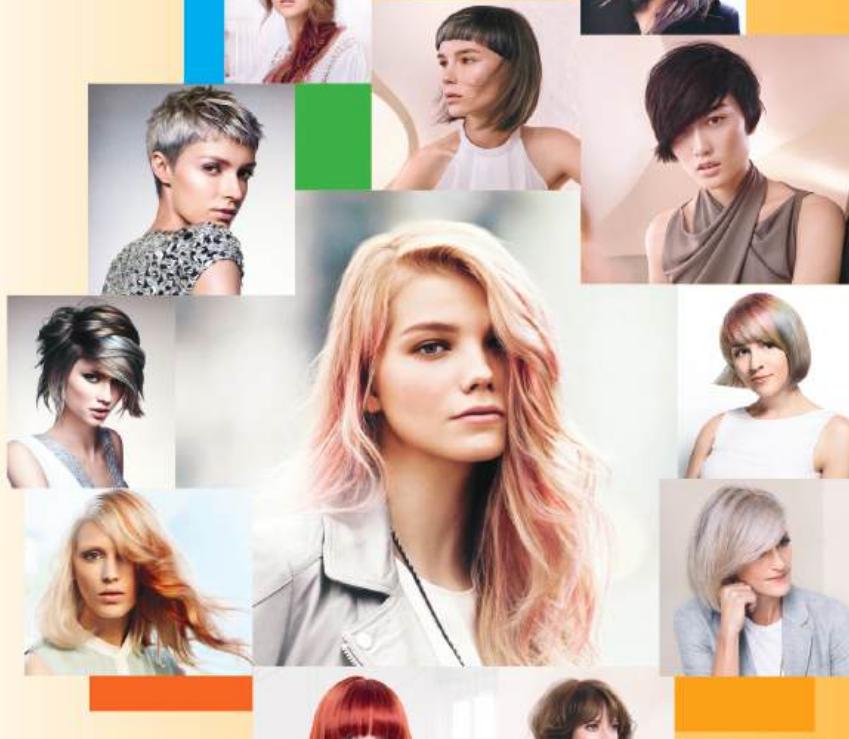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성경의 여러 부수적 내용상 오류나 부정확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방해 요인이 될 수 없다. 기독교 미디어 콘텐츠의 일부 성경 내용 각색은 이런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미디어 콘텐츠가 성경 교육을 온전히 대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당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고 자세하게 학습하고 순종하는 훈련은 목회 현장에서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임무다.

기독교 미디어 콘텐츠는 제한된 수준에서 선교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나 오해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 부당한 반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반기독교적이고 급진적인 방종을 조장하는 사상적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가 넘쳐나는 오늘날의 미디어 현실에서, <킹 오브 킹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미디어 콘텐츠가 제작되고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바람직한 시도가 기독교계와 미디어 업계에서 지속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보수적이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미국의 많은 가정들은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 콘텐츠에 대해 우호적이다.

앞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マイスタイルリスト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
컬라

\$40
부터
시작

레귤러
\$20
부터
시작

*단, 컬라만 하시면 \$40
부터 시작

프로페셔널- 웨ла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웨ла 제품으로 칼라한 살게 사용됩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영국 거리 설교자, 무슬림과 교리 토론 중 체포돼… 검찰, 기소 취하

기독교법률센터 “미성년 대상 성범죄 무슬림엔 소극 대응하는 것과 대조돼”

영국에서 거리 설교 도중 무슬림에게 이슬람 교리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가 체포된 60세 기독교인이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 이하 CPS)의 기소 취하 결정에 “안도했다”고 밝혔다.

고 밝혔다. CPS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익에 필요하지 않다”며 정식 소추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존 스틸(John Steele·60)은 지난 6월 21일 잉글랜드 사우스요크셔주로 더러운 시내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중 한 무슬림 여성과 신앙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당시 스틸은 파키스탄 등 소수민족 출신 여성들의 가정폭력 피해를 돋기 위한 거리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무슬림 여성에게 꾸란(이슬람 경전)의 한 구절을 언급하며 “꾸란은 가정폭력에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 “성경에서는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고 명하고 있다”며 기독교적 관점을 설명했다.

이 대화 이후,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 4명이 출동했고, 경찰은 스틸에게 다가와 신원과 연락처 제공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틸이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경찰은 그의 발언이 ‘반사회적 행위’(anti-social behaviour)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관은 스틸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증오성 사건’(hate incident)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며 신원 정보를 거듭 요구했다. 스틸은 경찰의 요구에 끝까지 불응하며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고, 결국 경찰은 2002년 제정된 경찰개혁법(Police Reform Act) 제50조에 근거해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스틸은 경찰서로 연행된 후 유치장에 구금됐으며, 지문 채취와 DNA 검사까지 받는 수모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은 법원에 회부돼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CPS가 “공익에 필요치 않다”는 판단 아래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스틸에 대한 형사소추는 종단됐다.

기소가 취하되자 스틸은 “단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범죄자처럼 취급받았다”며 “이번 일은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생취된 자유, 곧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영국 거리 전도자 존 스틸(오른쪽) 씨가 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바디캡 영상

권리가 얼마나 잠식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25년간 거리 설교를 이어오며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었다는 스틸은 “나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라 사랑으로 희망을 나누려 간 것이었다”며 선의로 한 행동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기소 취하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화가 났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 스트레스를 소모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기 때

문에 나는 거리로 나간다. 두려움 때 문에 복음이 침묵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리 설교 사역을 계속해 나갈 뜻을 시사했다.

아울러 “영국은 성경적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다. 이 시대에 담대함을 가지고 결코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스틸의 법률 지원을 맡은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 이하 CLC)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이는 영국에서 기독교인의 자유가 얼마나 약화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CLC 측은 스틸의 체포가 경찰의 ‘이중적 법 집행’ 행태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로더럼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은 다수 기해자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대응을 주저해 거센 비난을 받은 반면, (기독교인) 거리 설교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잉 대응을 보였다”고 이중잣대 논란을 제기했다.

CLC의 앤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대표는 “이러한 사건은 애초에 여기까지 진행되어선 안 됐다”며 “경찰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의견을 밝힌 시민을 상대로 이른바 ‘비범죄 혐오 사건’을 운운하며 겁박 한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기독교 설교자가 이슬람 신념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이유로 체포된 도시에서, 경찰은 수년간 이슬람 ‘그루밍’(조직적인 미성년 성범죄)으로부터 취약한 소녀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례의 모순을 꼬집었다. 이어 “사우스요크셔 경찰이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미국 ‘종교의 자유’ 보호 수준, 주별 격차 여전

FIGURE 3: RELIGIOUS LIBERTY IN THE STATES 2025 RANKINGS



미국 각 주의 종교 자유 순위를 숫자와 색으로 표시한 보고서. ©2025 미국 종교 자유 보고서

미국 내 종교 자유가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2025년 미국 종교 자유 지수’(Religious

Liberty in the States Index, 이하 RLS Index)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는 74.6%의 점수를 기록하며 종교 자유 보호 수준 1위를 차지했다.

교육 선택권, 백신 접종 면제권, 예배 제한 금지 등의 다양한 법적 조치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플로리다가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뒤를 몬태나(70.6%), 일리노이(68.8%), 오하이오(66.9%), 미시시피(66.4%) 등이 이으며 상위권을 형성했다. 반면, 종교 자유 보호 수준이 가장 낮은 주는 웨스트버지니아(19.6%)로 조사됐으며, 와이오밍(23.3%), 미시간(27.4%), 네브래스카(29.1%), 버몬트(29.3%) 등이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각 주의 종교 자유 보호 수준을 47개 법률 및 헌법 조항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정부, 보건, 경제, 가정, 교육, 신앙 생활 등 6개 핵심 분야를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전체 50개 주 중 38개 주가 50% 미만의 점수를 받아, 여전히 상당수 주에서 종교 자유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몬태나는 지난 2022년 대비 무려 31%포인트 상승해 주목을 받았다. 의료 종사자의 양심 보호 법이 통과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아이다호주 역시 가족법 및 건강 관련 종교 보호 정책을 새로 도입하며 점수가 상승했다.

보고서를 발표한 보수 법률단체 ‘페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은 “종교 자유 보호 수준은 정치 성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위권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우세한 주들이 훈재돼 있어, 정당보다는 실제 법 제정과 시행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2025년 RLS Index는 종교 자유 보호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주별 입법 환경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홍은혜 기자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내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수 있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씨, 저는 56세 조그만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럭저럭 생활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동안 IRA를 하면서 모든 돈이 그래도 11만 불 정도 되거든요. 매해 넣었던 것은 아니고, 해마다 같은 돈을 넣은 것도 아니지만 그 정도 있고, 또 Roth IRA로 넣은 돈이 3만불 정도가 있습니다. IRA의 문제는 은행에 그동안 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자란다는게 문제이고요, Roth IRA는 뱅가드에 넣었는데 여기는 돈이 자라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에이전트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냠두면 자란다고 하는데 떨어졌는데도 Fee가 나간 것을 알고 나니까 정이 떨어져서 아 더 이상 안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문선영씨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요, 누가 이걸 어뉴이티에다가 옮기라고 하는데 ira를 어뉴이티에 옮길 수 있나요? Roth ira하고 합쳐서 그럼 옮기는 걸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 고 있는 것도 약오르는 문제이고, 마이너스 을 들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요즘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자 받지 않

지, 옮길 수 있는지, 합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뉴이티는 아주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은행이 마치 CD라는 상품을 만든 것처럼, 투자 회사가 무주얼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을 출시하는 것처럼, 보험회사가 만든 금융 상품입니다. 따라서 보험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보통 생명보험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보험 회사에 왜 내 IRA를 넣어 라고 화들짝 놀라시는데요, 보험회사가 우리가 생 각하는 생명보험 상품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바로 이 어뉴이티라는 상품도 가지고 있는거죠. 이 어뉴이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정말 여러각도와 이유로 다루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유튜브가 끝나면 다시 검색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IRA는 텍스 코드이지, 엄밀히 말하면 상품이 아니다, 즉 IRA는 은행에도, 투자회사에도, 보험회사에도 내가 IRA 어카운트를 오픈할 수 있다 다만 텍스 코드를 IRA라고 표시해 두고 IRA를 따로 기만 하면 되는거죠. 그래서 은행에 가지고 있는 IRA를 보험회사의 어뉴이티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ira를 어뉴이티 ira에 롤오버(Roll Over)한다고 하는거죠. 그랬을 때 은행보다 더 큰 이자를 주는 것

으로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인 Roth IRA가 떨어져서 속상한데 거기에 Fee까지 나가니 정이 떨어지셨다 했는데, 이 Roth IRA는 떨어졌다고 하시면 그 Roth Account를 은행에서 개설을 하셨던 투자회사에 개설을 하셨건, 혹은 보험회사에 개설을 하셨건 모두 투자 상품이 변동이자 Variable Interest를 받는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 이 Roth IRA를 보험회사 Roth IRA로 옮기신다고 할 때에도 이자를 변동 Variable 이자 아닌 인덱스 Indexed 어뉴이티로 넣으시게 되시면 떨어지지는 않고 10년 20년 평균 주식투자와 비슷한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으니 더욱 안심이 되겠죠. 세번째 질문이었던 그럼 IRA와 Roth IRA를 그럼 합하여 어뉴이티로 넣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이 두 가지가 텍스코드가 다르지 않습니다. IRA는 세금을 안내고 지금 세금혜택을 보신 금액이 들어가서 나중에 찾을 때 택스를 내어야 하는 어카운트이고, Roth IRA는 세금을 낸 돈이 나중에 자라서 찾을 때 세금을 안내고 찾는 어카운트 이죠. 이 둘의 텍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합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만 선생님이 59세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59세라고 하셨습니다.

재정상담 누구에게 맡기시나요?

실력 / 신뢰 / 경험을 바탕으로 만족도 1위 재정전문가 문선영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 은퇴연금 / 리테일리테일 / 401K 롤오버 / 헤지글 / 헤지풀 / 상속

문선영의 머니토크

미국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재정전문가입니다.

리더십으로 인정받고, 미국국제무역협회

미국국제무역협회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으로 인정받고, 미국국제무역협회

미국국제무역협회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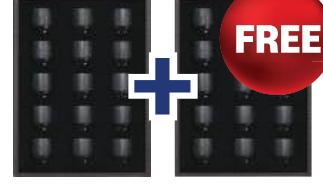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민족기업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한국 본사 지원으로 전제품 100세트
하나사면 하나 더 특별세일!!



유한건강생활

Buy 1 Get 1 FREE



유한양행 전용농장의
최상급 통녹용과 통홍삼
활력증진 한방 성분
천수단

~~2개 \$720~~ → \$360



유한양행 전용농장의
최상급 통녹용과
통홍삼 진액 200g
천녹용홍삼 200

~~2개 \$720~~ → \$360



유한양행 전용농장의
통녹용과 통홍삼 진액!
휴대와 복용이 간편한
전녹용홍삼 스틱

~~2개 \$420~~ → \$210



눈의 피로와 노화 방지
효과빠른 눈건강 영양 개선제
루테인 아스타잔틴

~~2개 \$130~~ → \$65



브라질 까무까무 열매와
아세로라로 만든 천연 항산화제
천연 비타민C

~~2개 \$130~~ → \$65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3종
소화 기능에 밀가루 글루텐과
우유 카제인까지 소화시키는
글루텐컷 카모트 효소

~~2개 \$120~~ → \$60



혈중 증성지질 개선과
혈액순환 개선
100% 식물성, 흡수율 높은
r-TG 오메가3

~~2개 \$140~~ → \$70



활력성분 비타민 B 6종과
미네랄 3종을 하나로
멀티비타민 & 미네랄

~~2개 \$140~~ → \$70



식사후 혈당 스파이크 억제와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혈당컷 다이어트

~~2개 \$80~~ → \$40



식후 혈당상승 억제와
정상적인 면역기능 케어
혈당 & 면역케어

~~2개 \$80~~ → \$40



각종 건강보험 OTC 카드 환영



셀리온 화장품

up to 30% 할인



일곱가지 세포성장인자
Growth Factor에 NMN 과
PDRN 성분을 더한 최첨단 피부활성 앰플
GF 7+ 앰플
~~\$280~~ → \$252



일곱가지 세포성장인자
Growth Factor에 NMN 성분을
더한 최첨단 피부활성 세럼
GF 7+ 세럼
~~\$120~~ → \$108



일곱가지 세포성장인자
Growth Factor에 NMN 까지.
강력한 보습 진정 성분 크림
GF 7+ 크림
~~\$180~~ → \$162



앰플+세럼 2종 세트
~~\$400~~ → \$320



세럼+크림 2종 세트
~~\$300~~ → \$240



**앰플+세럼+크림
3종 세트**
~~\$580~~ → \$406



피부 깊숙이 모공 세척과
보습을 통해 맑고 투명한 피부로
되돌리는 오일 세안제
GF 7+ 페이스 오일솔
~~\$60~~ → \$54



목련꽃 추출 성분과 맥주효모 그리고
비오틴 성분으로 깨끗한 두피.
풍성한 모발 관리
해어샴푸
~~\$40~~ → \$36



목련꽃 추출 성분과 오일 성분으로
건조한 피부개선과 건강하고
매끈한 피부 관리
바디워시
~~\$40~~ → \$36



병풀 추출물과 목련꽃 추출 성분, 다양한
피부 영양성분의 세럼으로 곤경임이
전혀없는 매끈하고 건강한 피부관리
바디세럼
~~\$60~~ → \$54



젊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유정란 배반엽 다능성 스팀셀
**테트라 앱솔루트
트라이얼 키트 (앰플+세럼)**
~~\$60~~ → \$54



순초약방 3종 세트
(퀵 수딩 젤+올인원 크림+탄투토 워시)
~~\$85~~ → \$60